

업계소식

사조원 나주도암장

2019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선정
-지난해 닭 도축장 이어 2년 연속 농식품부장관상 영예-



농업회사법인 (주)사조원 나주공장(대표 이창주 (구)사조화인코리아) 도암장(오리 도축장)이 ‘2019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선정돼 2019년 12월 11일 이 창주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도축장이 2003년부터 HACCP가 의무적용된 이후 2005년부터 HACCP 운용 수준 적정성 평가를 해 15년째 시상하고 있다.

베스트 도축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소비자단체 평가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1차 평가를 해 우수 작업장 후보를 선정한 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만 구성된 2차 평가단이 불시에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한다.

사조원은 닭과 오리를 사육, 도축, 유통하는 전남의 대표적 축산물 작업장이다. 2018년 나주 도계장이 베스트 도축장으로 선정됐고, 2019년 나주 도암장이 선정 돼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조원 이창주 대표이사는 “위생에 가장 민감한 소비자가 선정한 베스트 도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비자가 인정하는 위생수준을 유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고 말했다.

다향오리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모집

모집기간 : 2019년 12월 9일 ~ 26일까지
합격자 발표 : 2019년 12월 31일

다향오리가 신제품 체험과 평가, 레시피 제안 활동에 참여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 12기’를 2019년 12월 26일(목)까지 모집했다.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은 다향오리 제품과 요리에 관심이 많고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를 대상으로 하며 평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하고 음식 사진 찍기, 자신만의 요리 레시피 공유에 관심이 많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12기 모니터 요원은 총 30명 선발할 예정으로 2020년 1월 중 진행될 예정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신제품 사전 평가 및 분석 △제품 아이디어 및 시즌별 레시피 제안, △SNS 온라인 홍보 활동 등 월별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사 오프라인 행사 진행 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선발된 모니터 요원에게는 다향오리 제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가장 우수한 활동을 보인 소비자에게는 상품권 증정 등 푸짐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다향오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모니터 요원들의 다향오리 제품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분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 12기’ 지원방법은 다향오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2월 31일(화) 다향오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지되었으며, 전화로 개별 안내한다.